

여수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본격적인 유치활동 돌입

여수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후보지로 여수세계박람회장 만장일치 자문위원회 개최 이어 10월 4일까지 전 시민 유치 지지 서명운동 전개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후보지를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건립 후보지로 여수세계박람회장과 돌산 진보지구 2개소가 논의됐으나 여수시의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여수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추천해 여수시의 유치활동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

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기존 해양시설과의 연계성은 물론 박람회장 사후활용 정책에도 부합해 유력한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에는 국동임시별관에서 해양수산 관련 학계와 기관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확정과 유치활동을 위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또한 오는 10월 4일까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한 전 시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도 건립 후보지 확

정에 힘을 실어준 만큼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에 들어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로 1,245억 원을 들여 전시관, 체험관, 연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건축부지 42,500㎡를 무상 제공하면 된다. 전라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10월 7일까지 공모를 받아 현장 평가 후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같은 달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여수시를 비롯해 해남, 완도, 신안, 강진, 보성, 고흥 등 도내 총 7개 시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현근 기자

보성군-순천대학교 지리산권 문화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농업유산 보전 위해 보성차 전통제다법 연구와 DB구축 나서

보성군과 순천대학교 지리산권 문화연구원이 한국 전통 제다의 역사적 연구와 다원별 제다법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다. 21일 보성군은 순천대학교 지리산권 문화연구원과 전통 제다 전문가, 제다 기술교류 등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이육 지리산권 문화연구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3년간 전통 제다인 현황 조사 및

제다 기법의 공동연구, 관련 학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성군은 '보성차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 '보성뇌원차 복원 및 제다기술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는 등 전통 제다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보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차의 전통 제다법을 비롯하여 다원별로 내려온 독특한 제다법(녹차, 발효차, 홍차, 떡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세계에 한국의 차를 홍보하고,



미래 세대가 보성의 차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운영

계절과 절기에 맞는 가족 여가 활동으로 가족친화 문화 확산 기여

국립 순천대(총장 고영진)가 순천시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순천시가족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가족사랑 실천과 가족의 다양성 인식 및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짝수달마다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월부터 시작한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짝수달마다 진행되며, 절기와 계절에 맞춰 정월대보름, 봄 활동, 하지·여름·

가을·겨울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최근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에서는 순천시 24가족(102명)을 대상으로 △제철 음식 △가족 △다양한 문화 △순천을 주제로 가족이 협동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골든벨 형식의 퀴즈쇼를 열고,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여 온 가족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내일 '경전선 전철화 도시 포럼' 개최

순천시는 23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전선 전철화 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순천시와 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동 개최하는 포럼은 "경전선 전철화가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원재무 김포대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현황과 문

제점에 대해 순천시의 보고로 시작한다. 이어서 박정수 동양대학교수의 '공간 재창조를 위한 철도 도심 통과구간의 개선 사례', 이정록 전남대 교수의 '철도 등 도시교통망이 도시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회의



광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아

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실무추진단은 주순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점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15개 부서장을 단원으로 아동친화 정책을 관리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2022~2025) 기본계획에 의거해 아동친화 6개 영역별(놀이와 여가/참여와 시민의식/안전과 보호/보건과 사회서비스/교육환경/주거환경) 26개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자 중 사회적 약자의 연회비 감면 범위 대상 확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했고, 지난 8월 선정된 아동권리 정책 우수 제안건을 공유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